2026 선지식 탐방 | 도심 스님 (연등사 주지)

자비연등을 밝히며 우리사회 공동체를 잇다



도심 스님이 12월 23일 열린 '제14회 파워브랜드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과 국회표창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도심 스님은 연등사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자비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 공동체 연대를 통한 불교의 공공성 확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비를 바탕으로 나눔에 앞장서는 수행자

안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에서 수행은 고요 속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행은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그 귀결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내는 실천이어야 한다.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의 행보는 이러한 불교의 본령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도심 스님은 오랜 시간 '수행자란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삶으로 풀어온 인물이다. 법당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서고, 설법에 앞서 손을 내밀며, 개인의 수행을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해 왔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순하다. 자비, 그리고 실천이다.

연등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수행

도심 스님이 주지로 있는 안성 연등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찰로 자리해 왔다. 스님은 수행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를 경우, 불교는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연등사는 늘 열려 있었다. 어르신과 장애인, 소외된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돼 왔다.

스님의 수행은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도심 스님에게 수행은 특별한 형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다. 이 태도는 이후 스님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풍총동문회를 이끌며 확장한 사회적 실천

도심 스님의 활동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도 자비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님은 2019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생활풍수 총동문회(동풍 총동문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4대에 걸쳐 동문회를 이끌고 있다.

동풍 총동문회는 단순한 동문 친목 조직이 아니다. 풍수지리라는 전통 학문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사회적 지혜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심 스님은 취임 직후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동문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후 전국 사찰과 명당을 중심으로 한 간산(看山) 답사, 풍수 현장 학습, 토론회와 세미나를 꾸준히 이어왔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학술 활동이 늘 사회공헌과 함께 진행됐다는 점이다.

학문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리더십

도심 스님의 리더십은 '성과'보다 '방향'을 중시한다.

2023년 열린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에서는

안성 연등사 중심 나눔 활발

동국대 기부, 장애인돕기 등

자비 실천 앞장서는 수행자

동국대 풍수지리 동문 조직

동풍총동문회장으로 사회공헌

공익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창종



2023년 9월 1일 동국대 발전기금 기부 모습. 장학 등 후학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국대 장학금 2000만원, 방송통신대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에 뜻을 보탰다. 학문적 성취가 사회로 환원돼야 한다는 스님의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러한 행보는 동문들의 깊은 신뢰로 이어졌다. 2025년 3월 30일, 도심 스님은 동풍 총동문회 제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연임됐다. 이는 단순한 연임이 아니라, 스님의 철학과 실천에 대한 공동체의 평가였다.

수행의 귀결, 거리에서 이어진 자비

도심 스님의 수행은 다시 거리로 향한다. 2025년 4월 9일, 스님은 동풍 총동문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에 나섰다.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 나눔은 형식 없는 수행의 현장이었다. 이어 4월 17일에는 생필품과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연임 이후 첫 공식 봉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수행의 결과는 결국 이웃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그의 행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다.

사회적 평가로 이어진 꾸준한 실천

도심 스님의 실천은 사회적 신뢰로도 이어졌다. 2023년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동국대학교 총동문회 공로상을 수상했고, 동풍 총동문회 활동으로 2023년 12월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표창과 2024년 12월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문화부문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 202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수행자의 사회적 실천이 공적 영역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교정중연등종 창종, 실천의 틀을 만들다

도심 스님의 이러한 삶과 실천은 불기 2569년 비영리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창종으로 하나의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법인은 2월 설립 허가, 4월 공식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며, 스님의 오랜 실천을 종단 차원의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리했다.

'정중연등'은 고요한 수행(정중)과 세상을 밝히는 실천(연등)의 결합을 뜻한다. 법인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1인가구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도심 스님이 걸어온 길의 연장선에 있다.

도심 스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꾸준하고 단단하다. 수행은 그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늘 타인을 향해 열려 있다. 학문 공동체에서도, 거리의 밥상에서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작은 인연 속에서도 스님은 같은 태도로 임한다. 도심 스님은 오늘도 고요한 중심에서 세상을 밝히는 연등 하나를 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2023년 4월 16일 방송통신대학에서 열린 동풍 총동문회 제1회 세미나 모습.



2025년 7월 13일 안성 연등사서 진행된 4대 회장 취임 및 임원위촉식.



2025년 12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풍 총동문회 송년의 밤.


2025년 4월 23일 안성 4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5년 4월 9일 탑골공원에서 원각사서 무료배식봉사 모습.



자비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